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24 년 3 월 25 일 02:30 에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안니타 마리아 울데리카 치코바르티노 수녀님이  
91 세 59 년 수도생활을 마치고 선종하셨습니다.

오늘 안니타 수녀님께 빠스또렐라로의 성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시편 저자가 노래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는 기도로 선한 목자를 따르고 자신을 무상으로 내어주며 사목 사명에 투신하며 살아간 59 년의 삶을 봅니다.

안니타 수녀님은 1933 년 2 월 4 일 치따두칼레에서 태어나, 같은 해 백성의 거룩한 마리아께 봉헌된 본당에서 3 월 19 일 세례를 받습니다. 1962 년 9 월 3 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으로 입회를 하고, 1963 년 9 월 2 일 수련기를 시작합니다. 1964 년 9 월 3 일 마리아 울데리카라는 수도명으로 첫서원을 합니다. 첫서원후 포의 카르보나라 공동체로 파견되어 유기서원기 내내 그곳에서 지냅니다.

1969 년 9 월 3 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종신서원을 합니다. 종신서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하였습니다. “거룩한 은총의 도움을 믿으며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하느님과 신비체의 전 구성원과 친밀하게 일치시켜주는 완전한 애덕 실천을 통하여 전적으로 저의 서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종신서원후 비첸자 성 아우구스티노 공동체로 파견되어 유치원에서 헌신하였고 공동체의 원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면학과 쇄신의 시기를 갖습니다.

안니타 수녀님은 신앙심이 깊고, 관대하며, 단순하고, 통교를 잘하고, 수용할 줄 알고, 근면하며, 이타적이었으며, 미소한 이들을 위한 사목을 사랑하였고, 가능하다면 바로 가족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주 프리모 마에스트로를 직접 알게 되었고, 그분을 바로 가족의 ‘아버지’로서 맞아들였음을 기억하였습니다. 공동체 생활의 가치와 기도를 믿었고, 항상 자신과 자매들을 위하여 내적 평화와 사랑할 수 있는,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선물을 청하였습니다.

주로 유치원 사목을 하였고, 유치원을 하면서도 몇몇 공동체에서 원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어디서든지 본당과 협력하였습니다. 1983 년 코로볼라, 1986 년 비첸자 성아우구스티노, 1996 년 네그랄 공동체에서 안식년, 1997 년 로마 토로 산 로렌조, 1998 년 노볼레도, 2000 년 총원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였고, 2004 년 카스텔 다 자노, 2010 베로나 이태리 북부 -모잠비코 관구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였습니다. 2016 년 건강 때문에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으로 들어왔으며, 2021 년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은 안니타 수녀님에 대하여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직에서 만난 사람들과 장소에서 남긴 좋은 표지와 선물들을 기억하였습니다. 안니타 수녀님은 병중에도 자주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항상 타인에 대하여 걱정하였고, 그들이 평화롭고 걱정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사도직을 하는 중에도, 투병중에도 항상 무상의 정신을 드러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카스텔 다자노 본당 공동체에서 사도직을 끝마쳤을 때 신자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본당 가족의 식구가 된 당신이 우리 본당을 떠난다니 매우 섭섭합니다. 우리는 자매로서, 친구로서, 신앙을 증거하는 삶의 모범으로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환자들과 노인들과 함께 하였고, 교리교사들과 독서단과 전례단과 함께 하였습니다. 어린이 성가대와 함께 하였고..... 모든 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항상 미소를 띠고 상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발끝을 들고 다니듯 조용히 함께 하였습니다.

안니타 수녀님이 당신의 파스카 여정을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관대하게 내어 주신 수녀님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안니타 수녀님, 당신을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평화와 화해의 은총이 필요하니, 전 인류를 위하여 전구해 주기를 청합니다.

2024 년 3 월 25 일 성주간 월요일  
로마에서  
총원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수녀